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똥별 찾기’ 접수시작



▲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똥별 찾기> 공모전

-열두번째 별똥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정상모)이 주최하는 제12회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 별똥별 찾기’가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사막의 별똥별 찾기’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SBS미디어넷, 메가몬스터가 공동주최하며, 롯데홈쇼핑이 후원하는 드라마극본공모전으로 재단 설립 초기부터 신인작가 발굴과 참신한 창작드라마를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공모분야는 70분 기준 16 ~ 24부작 미니시리즈분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 오후 4시까지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홈페이지(www.bcpf.or.kr) 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시상규모는 대상 1편, 우수상 2편, SBS미디어넷상 1편, 메가몬스터상 1편으로 총 6천만원의 수상금을 수여한다.

‘사막의별똥별찾기’는 방송사가 아닌 영역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드라마극본공모전으로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해 당선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에 배포함으로써 실제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단의 이러한 노력으로 제5회 수상자였던 임상춘 작가는 수상 이후, 신인작가로 데뷔하여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으로 활발한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3회 우수상 수상작 하명희 작가의 <닥터스(원제: 여깡패, 혜정)>와 제7회 우수상 수상작 오지영 작가의 <쇼핑왕 루이>, 제9회 대상 수상작인 최수미 작가의 <간택:여인들의 전쟁> 등 공모전 수상작들이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간택: 여인들의 전쟁>은 최근 방영된 방송사의 드라마 최고 시청률로 종영한바 있다.

제10회 대상 수상작인 문현경 작가의 <출사표>가 현재 드라마로 제작되어 KBS 방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수상작들이 방송사 및 제작사와 계약하여 방영준비를 앞두고 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는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도 드라마극본공모전 ‘사막의별똥별 찾기’를 통해 등용한 임상춘 작가는 <동백 꽃 필 무렵>을 집필하여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함을 안겼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작품들과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여 방송영상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끝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cpf.or.kr>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cpf.or.kr>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유튜브: <https://bit.ly/2GZeTz4>
- BCPF콘텐츠학교 유튜브: <https://bit.ly/33jDI26>